

JY,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 육성... 미래먹거리 발굴 박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북미 출장 캐나다 토론토 AI연구센터 방문 후 모더나 누바 아페안 의장 만난 듯 삼성, 바이오업계와 협력모색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출장에서 현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며 미래 먹거리 육성 작업을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16일(현지 시간) 모더나 누바 아페안 공동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을 만났다고 1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4일 5년만에 북미 출장을 떠난 바 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며 모더나 소재지인 보스턴에도 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버라이즌 베스트베리 CEO.

이 부회장은 첫 일정으로 캐나다 토론토 AI연구센터를 들렀다가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누바 아페안 의장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모더나 경영진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한지 3달여만. 모더나 스테판 방셀 CEO가 아페안 의장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만남을

통해 모더나 뿐 아니라 여러 바이오 업계와도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미 CDMO 부문에서 4공장까지 합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상황, 모더나를 성공적으로 생산하며 검증받은 능력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해 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모더나 아페안 의장.

/삼성전자

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버라이즌과 국내 최대 규모인 8조원 규모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이 글로벌 경영을 재개하면서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육성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남은 미국 일정에서 현지 파운드리 팹 증설 등 반도체 사업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며 해외 네트워크 복구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 복귀 후 첫 미국 출장에서 두 회사 경영진을 잇따라 만난 것은 이 부회장이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모더나와 버라이즌은 최근 삼성과의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업체여서 향후 공조 분야가 더 확대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배달앱 노동자 220만명... 월 평균소득 192만원

고용부, 플랫폼 종사자 규모·근무실태 국내 취업자의 8.5%... 절반은 '주업'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앱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220만명, 전체 취업자의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가량은 '주업'이었고, 올해 월평균 소득은 약 192만원이었다. 또, 10명 중 3명 풀로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근무 여건이 취약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

모와 근무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5~69세 플랫폼 종사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플랫폼을 매개로 한 모든 종사자는 약 220만명으로 전체 국내 취업자의 8.5%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 179만명(7.4%)에서 더 늘어났다. 여기서 배달 기사 등으로 좁히면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2.6%)이었다.

66만명 종사자들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주업'이라고 답했다. 주업은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를 넘거나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다. 이어 부업(39.5%), 간헐적으로 일하는 유형(13.3%)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업무가 82%로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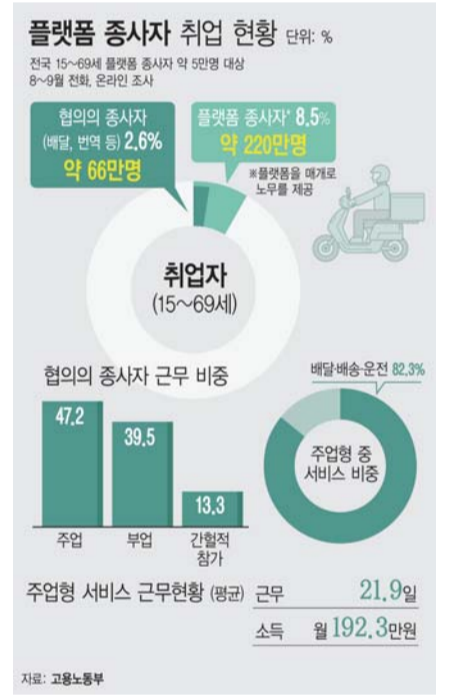
플랫폼 종사자들의 월평균 소득은 192만3000원으로 지난해(238만4000원)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수요가 커지면서 배달 업무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부 설명이다.

이들 중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7%에 불과했다. 계약을 했더라도 내용이 바뀌면 '플랫폼이 일

방적으로 결정·통보'하는 경우가 47.2%였다. 28.5%는 계약을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기업이 정한 '업무 규정이나 규칙이 없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나머지 41%는 규정이 있지만 위반할 경우 '일시적 앱 차단 또는 일감배정 제한'(83%), '계약 해지'(59%) 등 불이익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22%는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비용과 손해에 대한 부당한 부담(18.1%), 일방적 보수 삭감(16.0%) 등도 꼽았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CBDC, 모든측면 검토 하면서 도입 추진"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CBDC 모든측면 검토, 도입 추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신속히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CBDC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한국은행 배준석 부총재보는 18일 '202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 부총재보는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수취하지 않는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ATM과 은행 지점들이 감소하면서 현금에 대한 접근성도 하락하고 있다"며 "CBDC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면서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경우 지난해 CBDC 연구를 공식화 한 뒤 지난 7월부터 2년에 걸친 디지털 유료발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배 부총재보는 "아직 중국을 제외하면 실제 환경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하

나 계획중인 국가는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 기업, 중계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모든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해 CBDC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명철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DC 이해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이 CBDC 도입할 경우 중앙은행은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고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BDC는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 현금수요가 빠르게 축소돼 궁극적으로 실물 명목화폐가 사라진 국가는 CBDC는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며 "신용미비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사람도 CBDC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BDC 도입시 잠재적 금융불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나유리 기자 yu115@